

## D. H. Lawrence의 소설에 나타난 지령의 세계 (A) -“Sons and Lovers”를 중심으로-

박 정 길\*

### I. 서론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자연이나 장소는 주제를 다루는 작가의 정신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에서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언쇼]가와 [린턴]가의 문명화 된 인간의 삶을 [히드크립]의 비 이성적인 감각에 자연이 편승하여 기존의 인간적인 질서를 무참하게 거부하는, 그리하여 [위드링 하이츠]의 형용사적 설명이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척박하기 그지없는 장소의 이미지가 인간의 이성에 반하는 적대적인 환경을 이루어 소설적 배경으로서의 상승효과를 높이는데 이용되고 있다. 인간적인 것의 파괴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매혹을 묘사해 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난폭한 충동을 현실화 하는 일에 상상할 수 없는 광기를 동원하고 있음을 본다.

[하디]의 경우에도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자연은 인간에게 지나치리만큼 비호의적이고 인간의 삶을 암울하게 이끌어 가는 “악마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실 그의 모든 작품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의 묘사는 운명의 강제력을 막아보려는 인간의 외소한 노력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를 보여 줌으로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서 작용하는 어떤 운명의 힘에 의해 회롱당하는 비관주의적 인생관과 정밀한 조화를 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간추려 말하면 [에밀리 브론테]가 보는 폭풍의 세계는 우리의 윤리적 감각을 혼란에 빠뜨린다. 여기서 [히드크립]에 의해 시종하는 광란의 에너지는 영혼과 교통하는 [하이츠]의 비인간적인 세계와 심리적으로 닿아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이러한 세계는 인간의 이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며 인간의 윤리적 감각이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교수

들어설 자리를 용납하지 않는 적대적인 관계로 인간의 심성을 이끌어 간다. 그런가 하면 [하디]가 보는 세계는 [테스]로 하여금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적이랄 수 있는 윤리와 이성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극적 요소로 조건화 해 버리고 있다. 그러므로 주인공이 소설속에서 사건과 만나는 인과관계보다 소설의 배경을 이루는 자연 또는 장소가 초자연적인 힘과 제후하여 주인공의 운명을 지배하고 그 운명을 비극적인 것으로 규정해 놓고 만다. 따라서 이 두소설에서 자연이나 장소가 기능하는 인간적인 요소의 파괴 내지 패퇴로 부각될 수 있는 관점은 두사람 모두의 세계가 조화나 융합을 전제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세계이며 내용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주제는 이분적이고 양면적이다.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 전자와 후자가 갖는 구성논리가 전혀 다르다. 이 경우 “[브론테]가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는 인간적 것의 파괴는 지극히 매혹적인 태가 있으며 [하디]의 경우는 비극적이다”<sup>1)</sup>

마찬가지로 [로렌스]에게서도 다른 작가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정신이 있다. 일찌기 Van Ghent<sup>2)</sup>는 ‘모든 영국 소설가들 중에서 [하디]와 [로렌스]가 자연을 가장 충실한 솜씨로 표현하고 있다’ 고 쓰고는 ‘우리의 상상력 앞에 자연이 일으키는 감정을 환기시켜 주는데 있어 천부적인 재능을 갖추었다’고 말한바 있지만 자연을 다루는 태도나 방법에 있어서 그 정신이 [브론테]가 [로렌스]와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고향의 향리로 했던 점하며, 그것도 실명의 자연과 장소를 소설속에 채용한 점은 [하디]가 [로렌스]에 훨씬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로렌스]에게 있어서 소설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자연 또는 장소가 앞에서 본 것처럼 주인공의 삶을 극단으로 조건지우는 식으로 작용하는 일은 없다. 사실 [로렌스]의 세계는 앞서의 두 작가의 세계처럼 이원적인 세계는 아니며 다원적인 세계라 해야겠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삶의 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로서 삶의 의의이고 활력이며 생명력의 모범적인 예증과 같은 것으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그들과는 사뭇 다르다. 그래서 자연과 장소는 [로렌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타성이고 실존이다. 그의 세계에서는 otherness타성이 인정되는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간에 언제나 창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1) Dorothy van Ghent, The English Novel/form and function, p.252.[1961USA Harper]

2) Ibid, 1. p. 252.

그것이 부정되는 경우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아 파괴는 물론 주변의 모든 것의 파괴에 영향을 미친다.<sup>3)</sup>

그의 세계는 균형과 조화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일방이 타방을 지배한다거나 조건지우는 따위의 침범은 안된다. 그는 자연의 무한한 dynamism의 이미지에서 미지의 실체-unknown modes of being-를 탐색해 내고자 노력한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인간의 에너지와 활력의 근원이고 인간관계를 규(조)정하고 특성화 하는 극적 이미지의 표상이기도 하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가 일찍이 '예술의 목적을 살아있는 순간에 인간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있다'<sup>4)</sup>라고 한 것이다. 이는 곧 인간과 자연간에는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을 소설의 중핵이 되는 정신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지 않다. Ford Madox Ford<sup>5)</sup>는 [로렌스]의 자연묘사는 작품속에 생명이 깃드는 요체 -when he writes of these natures these passages run like fire through his books and are exciting.(.....) because of the life that comes into his writing로 생각하는가 하면 Vernon Lee<sup>6)</sup>같은 이는 자연을 보는 그의 능력이 특별하다.-more than a human being ought to see-는데 의의를 달지 않는다. 과연 자연에 대한 [로렌스]의 표현력은 여타의 영국 소설가에게서 볼 수 있는 분위기와는 다르며, 이것은 [로렌스]만의 자연에 대한 고유한 열정인 동시에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자질로서 글로 묘사되기만 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실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인간의식을 초월하는 자연의 광대한 도덕율에서 포착되고 형성된 보다 규모가 작은 도덕체계를 자신이 설정한 소설의 배경에다 매입하려 한다. 그것이 그가 그리는 소설의 환경이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는 자연이나 장소는 자신이 지닌 감성의 일부라 하여도 과언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이다.

[브론테]에게는 Yorkshire의 세찬 바람과 거칠은 계곡이이 있었다면, [하디]에게는 Wessex라는 이름아래 Dorset, Somerset, Wiltshire, Devon과 같은 남부의 광활한 토지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로렌스]에게도 그에게 자연에 대한 남다른 감각

3) Ibid, 2. p. 252.

4) D. H. Lawrence, Phoenix, p. 527 [1961 London Heinemann]

5) Madox Ford, D.H. Lawrence: future primitive, vol. 5, p. 20 [ed. Dolres La Chapelle 1966 Univ. of N. Texas]

6) Vernon Lee, The Letter of D.H. Lawrence, p. xxx [ed. A. Huxley, London]

을 키워주고, 자연/장소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는 'genius loci'<sup>7)</sup>를 있게 해 준 고장으로 Midlands가 있었다.

그에게는 Notts./Derbyshire 일대의 England가, 그중에서도 Eastwood/Cossall/ilkeston을 포함하는 여러 고장은 자신의 일부나 다름없는 "내마음의 고장"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설에서 그가 채용하고 있는 장소는 인간의 자아의식에 대한 인식의 바탕이 되고 있으며 생명의식에 대한 사유의 장으로 지리에 대한 그의 정신은 인물의 행동과 운명을 결정하는 매우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그가 소설속에 그리고 있는 이 지역은 그들의 생활양식이 남부지방과 다르며 종교적 배경은 물론, 정치적 전통이 과격한 역사의 고장이다. 그래서 그가 작품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여러 인물들과 자연지리에 얽힌 장소는 곧 Lawrence's people의 고유한 identities로 발전하기도 한다.

\*Nottingham은 England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대 도시이다. 동북에서 남서쪽으로 Trent강이 흐르고, 시의 중심에는 아직도 Robin Hood의 전설이 얽혀 있는 Castle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에는 Sherwood Forest와 현대적 산업시설이 혼재하고 있어 현재와 과거의 대조를 접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런가 하면 이곳으로부터 북서쪽으로 9마일쯤 떨어져 있는 소읍 Eastwood, 이곳에서 태어나고 어린시절을 보내면서 접했던 [노팅햄셔]와 [더비셔]의 아름답던 자연경계와 Erewash강과 계곡, 농장과 숲, 그리고 겨우 3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살던 소규모의 탄광마을, 그 탄광 조차도 자연 가운데 있는 아주 우연한 것 째로 여겨지던 곳, 아직도 옛날처럼 울창한 숲이 있고 과거의 농경생활이 그대로 남아 있는 Old England의 한자락, 그 모든 전경속에 담겨 있는 곳곳은 [로렌스]에게는 단순히 시각적인 모습으로 떠오르는 고향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뿌리박힌 고향이다.

- "It is hilly country, looking west to Crich and towards Matlock, sixteen miles away, and east and north-east towards Mansfield and Sherwood Forest

7) Edith Cobb, *The Ecology of Imagination in Childhood*, pp. 44-6 [1988 London]

district. To me it seemed, and still seems, an extremely beautiful countryside  
“8)

그런데 오래된 옛 정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줄 알았던 고향에는 대규모의  
탄광이 들어서고 광부들의 주거지와 교회며 성당이 들어차 이제는 그곳의 생활이  
현대의 산업주의와 과거의 농경생활이 뒤섞인 별난 “이종교배의 추한 모습”<sup>9)</sup>을  
[잉글랜드]의 비극으로 비유하면서 [잉글랜드]의 진수<sup>10)</sup> It is real England, that  
hard pith of England.였던 아름답던 자연의 훼손을 안타까워 하고있다.

그에게는 이곳 저곳에 놓여있는 하찮은 경계표시망과 옛 [잉글랜드]의 변화된  
오늘의 추한 모습도 모두가 다 삶의 소산이고 생활과 경험의 장이다. 그의 기억속  
에 남아있는 전경은 자신의 일부이며 자신과의 일체감을 갖는 일종의 귀중한 소  
유물과 같은 것으로 비유되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East Midlands 지  
방의 곳곳이 그의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는  
생각이 든다. 사실이지 그의 장소에 대한 집착이나 감각은 남다른 데가 있다.

그가 미국 고전 문학에 관한 연구(SCAL)의 서설에서 장소가 가지는 고유한 감  
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대목은 인상적이다: 모든 장소는  
“다른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는 정신이 있다.” 그곳에는 “새로운 목소리”가 있으  
며 “색다른 감정”이 있다. 여기에 작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모랄을 설정하고 “감동  
의 경험”을 부여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역은 지역마다 “그 지역에 특유한 토지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는 “지구 표면상의 각기 다른 장소는 각기  
다른 활력의 유출, 각기 다른 진동, 각기 다른 화학적 양분, 각기 다른 별파의 각  
기 다른 편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지령 즉, “토지의 정신은 하나의  
위대한 현실”이라고 소리치고 있다.<sup>11)</sup>

8) Ibid, 4. p. 133

9) Ibid, 8. pp. 135-7

10) The Collected Letter of D. H. Lawrence, p. 952 [ed H.T. Moore 1962 London  
Heinemann]

11) D. 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pp.7-14 [1982 penguin]

[아메리카]는 그렇다 치고 그가 소설에서 밝히고 있는 새로운 정신,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감정은 과연 어떤 것인가? 소설속에 등장하는 place-name은 잘 알려진 것이건 아니건 간에 그곳에 관한 언급은 인물과 관련을 맺는 삶의 장이되고 경험의 장이 되기도 하고 개인의 가장 심오한 자유 의지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자연과 거명되는 장소는 하나의 사상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로렌스]의 눈에 비친 Midlands의 경계표시망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an essential moment of life<sup>12)</sup>이라는 회고적 의미도 함께한다.

그는 산업화로 전환된 [잉글랜드]가 나중에는 대량파괴를 불러올 전쟁을 통해 마침내는 인간성이 상실된 사회로 이어지리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자연의 훼손이 인간이 갖는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하여 Industrial England를 경원하였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작품속에 그려놓은 장소에 대한 양극성landscap and the country were freedom, the industrial town and the city were mechanical slavery<sup>13)</sup>과 자연지리에 대한 상징적인 언명은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와 유관하다는 추론은 소설이 지향하는 또하나의 중심의식이자 자신의 시대의식도 되고 [잉글랜드]가 어떤 곳 이어야 한다는 역사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향과 함께하는 그의 소설 의식은 동시에 주변의 자연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다룬다. 그는 과연 똑 같이 여러 소설의 배경으로 삼았던 향리에 대하여 그의 정신을 어떻게 열어 보이고 있으며 그가 특이하게 집착하고 있는 지령the spirit of places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의 주요소설의 <sup>1</sup>opening paragraph서막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 II. 본론.

\*The White Peacock의 Opening phrases에서 [로렌스]는 서두에서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지않고 있다. 다만 Strelly Mill의 전도를 어렵게 암시하

12) Jessie Chambers, D. H. Lawrence: a personal record, pp.30-8 [1980 Cambridge]

13) Mark Schorer: 'Lawrence and the spirit of place' p. 283

는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옛\* older) England의 장원의 이미지가 주는 역동적이고도 꿈같은 자연의 일면은 (지금의\*new) England의 파괴적인 이미지를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기할 일은 [백공작]이 소설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짜여졌다는 사실이다. [백공작]이 등장하는 곳은 Cambridge 출신의 재사로서 목사가 되었다가 지금은 사냥터 지기gamekeeper를 하고 있는 Annable이 등장하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 책은 어머니에게 봉정할 의도로 급히 쓰여졌으며 후속하는 S/L와 같이 “정신적인 자서전”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하는 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소설의 배경이 그가 젊은 시절 부터 익히 알던 [이스트 우드]를 중심으로 실생활과 주변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소설의 서장을 여는 제목이 [네더미어]의 사람들The people of Nethermere이라는 것을 상기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는 공업지대의 추함도 없고 탄광의 이야기를 제외하여 버렸으므로 광부들이 소설에 등장하지도 않는다. 자기 고장을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시골 사람이 시골 풍경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언뜻보면 순전히 전경묘사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경을 묘사 하면서 문제의 지방에 대한 역사적인 조망을 해 보임으로서 소설의 서장을 열고있는 것이다. 본래는 Nethermere계곡의 자연과 인간들의 관계를 다루고자하는 의도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불행을 예고하는 상황을 암시해 놓고 있다. 소설은 깊은 인상을 주는 인물이 없는 대신에 [네더미어]의 시골 생활에 대한 정밀한 묘사가 있어 후속하는 소설S/L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면이 보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 이면서도 중류가정의 안정된 [브르쥬아]의 배경을 도입함으로써 중류계급에 들고자하는 가정적 열망을 들어내고 있어 [로렌스]의 의도적인 고의성을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인생에 대한 관찰도 경험도 청년의 가슴으로 소화되지 않은 [에피소드]를 모아둔 것에 불과하다 라는 평을 듣는다.<sup>14)</sup> 그런데 S/L에서는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인물이 있지만 W/P에는 계절 따라 변모하는 경치와 시골생활에 대한 정밀한 묘사가 있다. 인간적인 면모를 그리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데가 없지 않으나 전경묘사며 [네더미어]에서의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 관한 묘사의 솜씨야말로 이책의 성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sup>15)</sup>

14) Anthony Beal, D. H. Lawrence, pp.3-6 [1968 oliver and boyd London]

탄전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계급의 삶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도 S/L와 똑같은 비전의 들판에서 그것들의 묘사가 제외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로렌스]의 의도적 고의로 보인다. S/L에 오면 landscape에 대한 시야의 폭을 확대하여 보다 확신에 찬, 즉 George Saxton처럼 실패와 의지가 나약한 인물이 아니라 보다 강한 의지를 펼쳐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이 그리는 landscape에다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Paul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이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사적교리를 시험하고자 한다. 거기에도 물론 자연질서와 장소에 대한 [로렌스]의 의도가 꺼지지 않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자연에 대한 이러한 그의 관심은 S/L와 The Rainbow에서도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17세기 이래로 탄광이었던 소읍과 이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그 관심사가 다소 다르게 전개될 뿐이다. '아들과 연인'이 한 개인의 성장과정을 그린 이야기라면 '무지개'는 인물보다는 인간성을 우선하는 주제로 하고 있다.<sup>16)</sup>

\*소설은(Women in Love를 가리킨다) Ursula 와 Gudrun/Brangwen 자매가 Beldover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인생문제를 논하는 장면부터 시작되고 있다. 등장 인물은 [로렌스]의 여인들로서 시대를 선도하는 여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landscape라거나 [잉글랜드]의 과거와 같은 역사적 사실도 현재에 밀려나 있으며, 현재 조차도 그 시점의 강조점이 역사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로렌스]가 추구하는 순수한 인간관계의 대 명제가 되는 본능적인 다름의 세계를 지향하는 순간이 강조되는 현재이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의 지리적인 경계나 역사는 이들이 일으키는 사건과 연동되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럼에도 소설은 저마다 각기 주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르게 쓰이고 있다. 똑 같은 장소이며, 똑 같은 전경임에도 하나는 "Place"가 인생의 삶과 경험의 장[Sons and Lovers가 그러하다]이 되고 있는데 반하여 다른 하나는 장소[The Rainbow를 가리킨다]가 어떤 개인의 삶과 관계를 갖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세대에 걸쳐 오늘의 자신을 있게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오늘날의 혈연적 유대를 갖게 되었다는것. 자신들 보다는 위대한 어떤 원초적인 관계가 인간과 땅

15) Keith Alldritt, The Visual Imagination of D. H. Lawrence, pp3-15[1971 London]

16) Ibid, 14. pp. 11-2



man and land 사이에 있어 왔음을 들어낸다. 그리하여 그것이 지금의 자신들 보다는 위대한 어떤 원초적인 강한 힘과의 역사적인 관계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이 다르다.

먼저 무지개의 Chapter 1 의 section /1/을 보기로 하자.

첫 시작하는 줄이 작품의 세계를 말해 준다. 무지개의 장소는 [노팅햄]주와 [더비셔]주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있는 습기찬 목초지대, Cossethay(실제로 현지에 Cossall 마을이 현존한다) 가까이에서 [마쉬]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브랑웬] 일가의 세계이다. 그곳은 [Erewash이레워시]강이 천천히 흘러가는곳, 한 두 마일 떨어져 있는Ilkeston일크스톤의 둔덕에 서 있는 교회의 탑을 일을 하다말고 허리를 들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고장으로 여기서 [브랑웬] 일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며 부족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내용을 잠시 들여다 보면 이렇다:

[그들은 봄이면 나무에 물이 오르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 그들은 이 자연이 움직임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마다 탄생의 씨가 나와서, 땅 위에 새로운 생명을 남겨두고 간다는 자연의 철칙을 잘 안 것이다. 그들은 또 하늘과 땅의 교점을 알고 태양이 젖가슴과 창자에 스며드는 것을 알았다. 비가 낮에 내려 대지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가을에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알몸이 되어 새들의 보금자리가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자연과 긴밀히 얽혀 있었다. 그들은 대지의 맥박을 느끼면서 이랑에 곡물의 씨를 뿌리고 살았다. 갈아젓힌 밭은 부드럽고 연약했으며, 옥망처럼 무겁게 그들의 밭에 매달렸다.] 추수가 되어 곡물을 베어갈 가을이 오면 대지는 뽀루통 해 있었다.] 그래서 사나이들의 삶은 이도면 충분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여인네들은 이것보다 다른 형태의 생활을 원한다:

[그들은 피의 친밀성이 아닌 무엇을 갈구했다. 여인네는 이 세계보다 멀리 떨어진 외부의 세계에 눈을 주고 있었다. 남자들이 주권을 쥐고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외부의 세계를 원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출산이라는 뜨거운 피가 도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 자신의 시야와, 한계와, 자유의 범위를 넓히는 일에 종사했으면 하고 갈망하는 것이다.]

즉, 여자들은 교육이 있고, 드넓은 세상을 동경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마음은 언제나 외부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점으로 미루어 보아 서장( Chapter

1의 section /1/ )은 이곳 농원과 자연의 사계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정적인 묘사와는 다르게 남녀가 열망하는 의식의 차이가 사뭇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Chapter 1의 section /2/에 들어오면 소설은 정적이던 묘사에서 벗어나 동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소설은 지리적인 장면과 [브랑웬] 가족의 연대기를 포함하여 [Tom 톰]의 열망과 정열 그리고 탄생과 창조와 우주적 이미지가 풍부한 상징적 수법으로 묘사 되기에 이른다:

1840년대의 산업혁명은 [브랑웬] 가족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처에 대규모의 탄전이 들어서고 운하가 뚫리며 철로가 부설되어 촌락과 도회의 교통이 한결 쉬워진다. [마쉬]농장도 이제는 더 이상 오지에 남아있는 농장이 아니다. 여기에 [로렌스]가 창제한 두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한 사람은 [마쉬]농원을 경영하고 [브랑웬]가족을 대표하는 Tom으로 그는 [브랑웬]가문의 뿌리이다. 그리고 그는 [Lydia Lensky 리디아 렌스키]를 만나 일가를 이룬다. 그들의 관계는 생의 완수를 얻었다고 만족하는 관계이다. 다른 한사람은 책의 나머지 대부분의 얘기가 계승되고 있는 [Ursula 우슈러]로 그녀는 [Will 윌]과 [Anna 에너]의 아홉 아이중의 마지이다. [윌]과 [에너]의 관계는 선대의 완수에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이다: [윌]은 부부간의 정리 보다는 교회나 목공일에, [에너]는 아홉의 아이를 기르는 일에 더 만족이다. [우슈러]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들과 연인]에서 어머니와 [폴]의 관계를 떠올릴만큼 흡사한 데가 있다는 점을 상기함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우슈러]는 [로렌스] 자신의 시대가 산출한 인물이며, 어느정도 까지는 [로렌스]의 경험을 대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로렌스]의 세대를 대변하는 상황을 소설에서 연출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슈러]는 [일크스틴]에서 선생이 된다. 여기서 [우슈러]는 공리적인 교육의 폐단에 절망한다.“[미스 하비]는 훌륭한 선생이시다. 선생은 학급의 질서를 바로잡고 놀랄 만큼 효과적으로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입한다.“-라는 말에 충실하려면 폭력을 쓰는 방법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실패에 또다시 절망한다. 그녀는 신여성 [Winifred Inger 위니프레드 잉거]와도 교분을 쌓지만 그녀와도 헤어진다. 그녀는 대학으로 간다. 그러나 대학은 자신이 갈곳이 아니었다. [Skrebensky 스크레벤스키]와의 재회도 실패로 끝나고 그녀는 광산촌으로 돌아오고 있다. 지나간 세월 속에서 모두(-)어머니와 아버지, [Anton 안톤]과 대학과

친구들“-)에게서 밀려난 그녀는 '이제 자신의 핵은 자유스럽다.'는 것을 예감한다. 그기에 '대지의 새로운 건축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있다.

간추려 말하면 할아버지의 청춘은 농장에 한정된 것이었다. 아버지의 인생과 정열은 교회에 있었다. 그러나 [우슈러]의 인생은 '계몽을 전제'로하는 인간상을 연출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의 이들 삼대의 역할은 '영국의 정신사이며 20세기초 영국의 사회사'<sup>17)</sup>라고 말할 정도로 배경은 주제의 특징을 강화해 주고 있다 하겠다.

\*@ 소설의 배경이 되고 있는 장소는 S/L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트 우드]이다. [Bottoms보텀즈] 단지는 본래 [Hell Row 헬로우] 마을이 있던 자리에 이어서 들어섰다. 이렇게 시작하는 서두는 소설가의 진정한 관심사인 사건과 인물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기 전에 앞서 나오는 전경의 관찰로 이어진다. “시냇물은 자그마한 탄갱들이 있었지만 거의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흐르고 있다. 그중 어떤 것은 찰즈 2세 때 부터 있어온 것이다. 이렇게 낮은 풍경이 매우 자연스럽게 지리적 역사적 설명으로 채워진다. 군데 군데 탄전과 목장, 광부들의 주거단지가 무리를 이루고 농장의 식솔들이 교회를 오가며 [Bestwood 베스트우드]라는 마을-고향 “Eastwood 이스트우드”를 가리킨다-을 이루었다. 이곳은 [로렌스]가 나서 자란 곳으로 어린시절의 집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주인공의 생활터전으로 배경은 모두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그런데 갑작스런 변화가 약 60년 전부터 일어난다: 이것은 소설의 시점이다. 소규모의 탄광이 대규모의 탄광에 밀려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 탄광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리고 [노팅햄]과 [더비셔]의 계곡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탄전과 광산에 대한 내력이 설명되다가 [보텀즈]의 주거단지의 생김새를, 그리고 마침내는 [모텔]가족이 기거하는 집 내부로 시점이 좁혀온다. 그리고 소설은 인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세부적인 장소를 부각시킨다. [로렌스]의 장소에 대한 의식은 단순히 육체의 눈 'the bodily eyes'을 통해 바라본 세상이 아니라 내심의 눈 'the mind's eyes'에 비친 정신의 세계이다.<sup>18)</sup>

17) Ibid, 16. pp. 37-65

18) Ibid, 17. p. 561

사실상 소설에서 장소는 인간관계의 원인의 요소로 '가장 실제적인 극적요소'-가 되기도 하고 '인과관계의 요소'도 된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장소라는 것이 '행동이 일어나는 곳'<sup>19)</sup>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버빌가의 테스]에서 [토머스 하디]가 보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와의 관계에서 인간의식이 패배하는 비극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나, [아들과 연인]에서는 장소가 갖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삶을 위한 매우 특별한 생활의 장이 되고있다: 이렇게만 말해두고 보아도 두소설의 주제를 가르는 중요한 요점을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는 정보를 가진 셈이 된다. 그러나 장소의 의미가 모든 이해의 기초이지만 사실의 전부를 다 말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만큼 제한적인 요소도 된다. 전경이 전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화 한다거나, 우리의 관능적, 혹은 열정적 감흥을 손쉽게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사물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가져다 주는 자극은 새로운 비전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지극히 중요한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흥이 장소를 달리할때마다 그 성질을 달리하는 상황으로 우리앞에 제시되는 현상이 S/L에서는 혼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문제의 [모텔]부인이 처한 상황과의 관련을 보도록 하자. 그녀는 [보름즈]의 주택단지로 이사를 오는 것이 수치라고 느끼는 여인이다. 그런데 한동의 끝 집을 얻게 됨으로써 그것을 위안으로 삼는다. 옆집으로 부터 독립된 공간이 있어 좋고, 집세도 가운데 집보다 비싸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서 였다. 그녀는 31세로, 결혼 한 지 8년이 되었다. 남편은 광부이다. [모텔]부인은 두 아이의 어머니이며 구월에 낳을 셋째 아이를 배고 있다. [모텔]부인은 지금 [보름즈]의 뒷마당을 무거운 걸음으로 걸으면서 오늘의 서러움을 말할 내일을 기다리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부인은 이웃과는 어울리는 일이없이 언제나 혼자이다. 남편은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주점에서 술 심부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인은 그런 남편을 경멸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남편에게 묶여있다.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눈에 익은 전경으로 pit가 나타난다. 이들 탄광을 중심으로 철로가 시골의 외곽을 잇고 있다. 이러한 전경은 W/P에는 묘사되지 않은 것들이다. 시냇가를 따라 늘어선 집들이 coal-dust가 쌓여 다소간에 지저분한 것일 뿐,

19) Ibid, 3. p. 201

노천탄광가를 흐르는 개울물도 더럽혀지지 않은채 흐르고 있다. 탄광 때문에 마을의 모습이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말은 없다. 탄광은 목장이나 보리밭이나 주택처럼 마을을 이루고 있는 구성체의 하나이지 흉물의 대상은 아니며 오히려 당나귀들이 지친듯 탄을 땅위로 파 올리는 기증기 주위를 돌고 있는 모습은 마을이 참으로 아름답고 한가롭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갖게한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어떤 기대되는 생활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들의 삶의 내부에서 활력을 되찾는 일로서 제일먼저 가족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런데 [월터모렐]과 그의 부인이 보여주는 관심사는 생래적인 것이어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타협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와 있다. 남편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부인은 적적한 집에서 철저한 환멸감에 빠져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 적어도 [월리엄]이 성장할 때 까지만이라도,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전망을 비판적으로 내다본다: 그녀는 자신과 남편 사이의 지금의 관계를 ‘마치 생매장이나 당한 것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가정에 대하여 책임과 임무를 다 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가 도덕적이고도 종교적인 인간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녀는 청교도의 높은 도의심과 종교적 본능으로 그를 개조하려 든다. 금주서약서에 날인을 하게하고 금주주의자의 리본을 달게했는가 하면 가능한것 이상으로 남편을 고상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들 관계를 극도로 반목케 한다. 둘 사이의 이같은 반목을 절정에 올려놓은 사건은 겨우 한살난 [월리엄]의 고수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린 [월터모렐]의 폭거에 맞추고 있으나, 그러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 놓았던 것은 경제적인 궁핍이 가져다 준 심리적인 환멸감이 매우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있다. 부인은 자신이 세든 집에서 살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매달 집세를 무는 집의 식탁에 앉아서 생활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즈음 부인은 [폴]에 대한 사랑의 보상을 이유로 남편에게서 더욱 멀어져 가고 있고, 때 맞춰 [월리엄]의 발전은 고무적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녀의 애정과 생활의 목표를 월리엄에게로 돌린다. [월리엄]이 자신을 위하여 세상을 밝게 해주는 남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베스트 우드] 사회에서 [부르조아] 계급과 교체하는 아들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 아버지 세대에서 자식의 세대로 그 역할 중심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생활의 약진은 소설의 무대를 [베스트 우드]에서

[노팅햄]으로, [런던]으로, 그 행동반경을 넓혀간다. 그리고 장소의 이동은 동시에 그들의 생활수준하며, 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도 불가분의 관련을 맺게 된다. 여기에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자리를 잡는다. 어머니는 삶의 모범이고 가족 구성원의 핵이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따라 배우는 경험의 본체이며, 아이들의 사고는 어머니가 설정해 놓은 동심원의 한계내에 있다. 이 동심원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소설의 분위기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족구성원들이 하나 둘 개인의 목소리를 드세게 표출하기 시작한다; 소설은 소도읍의 한정된 생활의 제조조건에다가 인물의 성장과정을 열거하고 이에 장소의 변화를 가미하게 되자, 어머니를 핵으로 하는 구심력에서 이탈하여 차츰 외부로 확산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서로 마찰을 빚는다. [모렐]의 가정으로 보면 남편은 이미 생활의 중심이 아니다. [모렐]은 이미 아내의 사랑이 자기를 떠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일이 없다. 비참한 감정이 온 집안에 흐르고 있다. 가족의 생활이 위축되고 침묵 당해 버린 가운데서도 [모렐]은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를 개념치 않는다. 오직 [pub주점]만이 그의 생활의 의미를 더해 주는 곳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곳은 [윌터모렐]만의 또 하나의 세계이다.

남편과 부인은 세상사를 전망하는 기본자세부터 너무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출신계급도 다르고 사회적지위나 교육수준이며 종교 조차도 서로 달랐다. 그러므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본원적이고 생래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Scott Sanders는 두 사람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갈등의 요인을 이렇게 설명한다.

“The conflict between the father and mother, is translated into moral terms, as a struggle between bad and good, and then into psychological terms, as the conflict between unconscious and conscious, and finally into an opposition between body and mind.”<sup>20)</sup>

즉, 도의적인 면에서 선과 악을, 심리적인 면에서 생각이 깊고 그렇지 못함을, 그리고 한사람이 지나치게 육체적인데 비해 상대는 또한 지나치게 정신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점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평은 두사람의 성향을 이분적으로

20) Scott Sanders, The World of The Major Novels, pp. 22-3 [1988 Indiana Univ. Press]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모델부인이 지배하는 소설의 흐름과는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과 소설의 세계가 보여주고자 하는 결합된 사회적 상황의 본질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베스트 우드]의 공매협회에 취업케 하고 속기사겸 부기계의 서기-the best shorthand clerk and book-keeper-/p.69/로 키워 내었다. 남편의 어머니가 아들을 열두살에 탄광에 보냈다고 해서 자기까지 아들을 탄광에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이다. 이제 어머니는 아들 [윌리엄]을 [베스트우드]의 [브르쥬아]계급과 교체하는 지위에 까지 올려 놓았으며, 급기야는 [노팅햄]을 거쳐 [런던]에 까지 진출시킨다. [윌리엄]이 [런던]으로 옮겨간 것은 장소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사건이다. 그것은 자기발전의 의미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이즈음에 가족이 [보톰즈]에서 [스카길]#로 이사 하고 있는데 이곳은 전망이 좋아 [민턴] 탄광과 [더비셔]의 아름다운 계곡을 내려다 볼 수 있을 뿐더러 한 개밖에 없는 외동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으로의 이사는 [베스트 우드]사회에서 가족의 위신을 한단계 끌어 올려 놓았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윌리엄]은 행복의 샘이었고 가정의 희망이었다. 부인에게서 아들 [윌리엄]의 존재는 남편에게서 얻을 수 없는 대상만족의 정화이다. 이제 그녀는 남편이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기운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노랫말 속에 담긴 소망은 차라리 [모델]부인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삶의 질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노래에 그녀는 감동하고 있는 것이다.

주. '스카길'= (#Scargill Street in the book is the same as Walker Street in Eastwood Nottinghamshire)

* 내 구두는 스페인 가죽구두,	-My shoes are made of Spanish leather,
내 양말은 비단양말;	My socks are made of silk;
열 손가락엔 반지를 끼고,	I wear a ring on every finger,
목욕은 우유로 한다.	I wash myself in milk.- [S/L p.99]

[윌리엄]이 [런던]으로 떠나고 난 이후에 [폴]이 그의 빈 자리를 채우는 중심이동을 해오는 시기가 지금이다. 그는 어머니의 태반에서부터 [보톰즈]의 사람 이었

고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를 편 드는 아들이었다. [폴]이 긴 겨울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탄광에서 돌아 오시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저녁시간을 함께하는 광경을 보자.

"In the winter nights, when it was cold, and grew dark early, Mrs Morel would put a brass candlestick on the table, light a tallow candle to save the gas. The children (.....) were ready to go out to play. But if Morel had not come they faltered. The sense of his sitting in his pit-dirt, drinking, after a long day's work, not coming home and eating and washing, but sitting, getting drunk, on an empty stomach, made Mrs Morel unable to bear herself. From her the feeling was transmitted to other children. She never suffered alone any more: the children suffered with her.

Paul went out to play with the rest.(.....).No more colliers came.(.....).It was night.Then Paul ran anxiously into the kitchen. The one candle still burned on the table, the big fire glowed red. Mrs Morel sat alone.(.....).

"Has my dad come?" he asked.

"You can see he hasn't," said Mrs Morel,(.....). They shared the same anxiety.(.....).

"What do you bother yourself for?" He said. "If he wants to stop and get drunk, why don't you let him?"

"Let him!" flashed Mrs Morel. "You may well say "let him." [ S/L pp.79-80]

겨울밤 좁디 좁은 부엌이 가족 모두의 생활의 장으로서, 동시에 가정교육의 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가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알게해 주는 교육이 포함된다. 불타고 있는 촛대위의 초를 보라, 아버지의 술 값도 아까운 빈한함이 보이지 않는가?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그리 긴 대화가 필요없다. [모렐]부인의 감정이 쏠쏠한 겨울저녁, 주인을 기다리는 식탁이 있는 부엌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폴]은 아직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판단이 옳은 것인지는 아직은 잘 모른다. 그러나 [폴]은 이미 어머니의 정서를 대변하기에 이르리 만치 어머니 편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로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불경을 그대로 지나치



않고 있음은 주목하게 된다. 가사의 개입을 용서치 않았던 것은 [윌리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신이여 우리집을 축복해 주시옵소서”하고 부모의 언쟁에 끼어 들었을 때 [모렐]부인은 그의 뺨을 때리고 있다.

아버지가 술을 끊게 해 달라는 [폴]의 기도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만은 아닌 것 같다. 그의 기도는 어머니 훈도와, -“Make him stop drinking”- 어린 아이의 순진한 정서와, -“Lord let my father die”- 가족의 안녕에 대한 애절한 소망 -“Let him not be killed at pit”-이 한꺼번에 노출된 부분으로 이는 [폴]의 소년다운 개인의 열렬한 신앙-“a fervent private religion.”[p.79]이라기 보다는 이시기에 가정을 지켜온 어머니가 [폴]의 성격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가늠케 해 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 [폴]은 어머니를 모범으로 하여 자란 아이이다. [폴]은 지금까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보는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성장해 온 것이다. 어머니를 따라 배웠지만 그는 어머니가 알수 없는 경지로 학문의 수준을 높혀가고 있다. 그는 어릴적 아동신문의 현상 당선자가 아니든가? 그는 [쇼펜하우어]를 읽었고 [보드레르]를 알았다. [폴]의 성장사는 형인 [윌리엄]과는 다른데가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삽화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는 [윌리엄]보다는 어머니의 아들임은 한층 더 분명해 진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그를 아버지에게서 떼어 놓았고 그가 받은 교육과 도회에서 쌓은 경험이 이제 어머니에게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여기 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윌리엄]은 [런던]에 가 있고 게다가 아버지마저도 입원으로 집에 없는 사이에 [폴]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 이집의 주인 이야”-“I’m the man in the house.”-[p.112]하고 [윌리엄]의 쇠락이 있을 후에 등장하게 될 자신의 입지를 미리부터 말해두고 있지만 아직은 가정의 평화스러움을 뒷받침 할 부의 근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난은 여전히 이 집안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니께서 “장차 무엇이 되고자 하느냐?”-“What do you want to be?”-[p.112]라고 물어 와도 이 세상에서 되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는 것이 [폴]의 대답이다. 일자리를 구해야한다는 것은 [폴]이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산업주의의 포로”가 되는 것이라 생각

하는 그는 “정연한 가치체제와 인간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실업의 세계”가 두렵다. 이때 [폴]이 어떤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주목하자.?

공매협회의 도서관 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계곡과 고향 사람들, 그리고 들 가운데의 탄광에서 피어 오르는 하얀 증기, 저 먼곳에 보이는 [Annesley아내서리]의 매혹적인 숲 등을 보면서 “그는 지금 명예를 진 노예가 되려하고 있으며, 사랑하는 고향의 계곡에서 그의 자유는 지금 잃어가고 있다.”고 자탄한다. 이때 고향에 대한 그의 근심은 고향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훼손 되어가는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은 [폴]과는 사뭇 다르다: [폴]을 [노팅햄]에 취직 시키고자 했던 날의 하루에서 나타난 일면을 보기로 하자. 지저분한 공장내부, 굴속처럼 어두운 층계를 타고 어머니는 [외과 의류기구-토머스 조단 부자상회]에 도착하고 있다; 어머니가 앞장서고 아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때 [폴]의 심경이 단 두대에 오르는 Charles 1세의 기분과 비유되고 있는데 이 장면처럼 과연 시골과 도회를 보는 그들의 각기 다른 시각을 극단적으로 노출해 보이고 있는 대목도 드물다 하겠다:

어머니는 [노팅햄]과 [노팅햄] 사람들을 좋아하고 도회의 생활을 동경하는 도시풍의 기질이 피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폴]은 다르다. 그의 정신은 어머니가 낚새를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 [노팅햄]과 [윌리]농장에 분산되어 있다. 여기서 어머니의 숨겨진 도시지향적 본심이 어느정도 인가를 보여주는 음미할 만한 연출을 요약해서 제시 해 보기로 한다:

"Is this the way to Willey Farm?" Mrs Morel asked.(.....).

"But now," she said,"Which way?" (.....).

"You've got town feet, somehow or other,you have."(.....).

But at the end of the riding was a fence to climb. Paul was over in a second.

"Come ," he said,"let me help you."(.....).

"What a way to climb!" he exclaimed,(.....).

"Hateful stiles!" she cried. [pp.154-5]

한 마디로 [월리]농장으로 가고 있는 어머니의 시골길 여정이 그렇게 서툴 수가 없다.

“어머니에게는 이 길이 무리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 [폴]의 생각이나 “올타리 대문은 밍더라.”라고 꾸짖는 어머니 사이에 이견이 없다. 그런데 “시내는 이상하고 재미 나는 곳”이라던 어머니의 호기심과 활력이 [월리] 농장을 찾는 어머니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노팅햄]으로의 여행은 어머니에 의해서 선도된 것이었다. 그런데 [월리] 농장으로의 여행은 모자가 연인처럼 나란히 가는 길이다. 그들은 햇빛 반짝이는 [네더미어]호수의 모퉁이를 돌아 [The Leivers레이버즈]씨의 집으로 가고 있다.

어머니는 자신이 바라던 경제적 이득과 중산층 진입이라는 두가지 명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도회에서 얻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믿어 그녀가 이룬 성취감에 취해 있다. 그러나 아들은 도시의 현란한 외양에 잠시 취하긴 했어도 고향의 신선한 자연에 더 매혹되고 있다. 그리고 [폴]에게 있어서 [레이버즈]가는 자신의 정체성에 눈뜨는 새로운 각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곳으로의 여행은 어머니가 [폴]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기도 모르게 도운 것이다.

\*아들과 어머니가 똑 같은 장소를 두고 아주 다를 감각을 보여주는 두가지 [에피소드]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상반되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첫째의 에피소드는 [민턴]탄광에 관한 것이다.

On the follow land the young wheat shone silkily. Minton pit waved its plumes of white steam, coughed, and rattled hoarsely.

'Now look at that!' said Mrs Morel. Mother and son stood on the road to watch. Along the ridge of the great pit-hill crawled a little group in silhouette against the sky, a horse, a small truck, and a man. They climbed the incline against the heavens.

At the end the man tipped the waggon. There was an undue rattle as the waste fell down the sheer slope of the enormous bank.

'You sit a minute, mother,' he said, and she took a seat on a bank, whilst he sketched rapidly. She was silent whilst he worked, looking round at the afternoon, the red cottages shining among their greenness.

'The world is a wonderful place,' she said, 'and wonderfully beautiful.'

'And so's the pit,' he said. 'Look how it heaps together, like something alive almost-a

big creature that you don't know.'

'Yes,' she said. 'Perhaps.'

'And all the trucks standing waiting, like a string of beasts to be fed,' he said.

'And very thankful I am they are standing,' she said, 'for that means they'll turn

middling time this week.'

'But I like the feel of men on things, while they're alive. There's a feel of men about trucks, because they've been handled with men's hands, all of them.'

'Yes,' said Mrs Morel. [pp.153-4]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Minton Pit'를 보는 모자간의 시각의 차이가 매우 현격하다는 사실이다.[ref,아래 20. 인용문] 어머니의 관심은 현실적으로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가정경제의 어려움이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관심사는 탄광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부인의 경우, 풍경의 아름다움은 차후의 관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름답다는 자연의 풍경은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이같은 어머니의 반응에 '글세요 탄광도 그렇군요'하고 슬거머니 탄광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pit'를 경원하도록 교육 받아 왔던 점을 상기할 때 [폴]의 이 말은 조용한 가운데 표출되고 있는 이외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브린스리]탄광에 관한 것이다. [폴]이 [윌리엄]의 죽음을 아버지께 알리려고 탄광의 사무실을 찾아 나서는 장면에서 보여주는 탄광에 대한 묘사이다.

It was a beautiful day. At Brinsley pit the white steam melted slowly in the sunshine of a soft blue sky; the wheels of the headstocks twinkled high up; the screen, shuffling its coal into the trucks, made a busy noise. [p.169]

여기서 주목할 일은 이렇듯 경황없이 돌아가는 커다란 슬픔의 순간에 'Brinsley Pit'를 묘사한 장면이 활기에 차 있으며 오히려 평화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무지 [모렐]의 가족집단이 산업화의 희생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탄광은 흥하다거나 없어야 되는 시설로 경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트 우드]생활의 경제적 기반은 탄광에 있음이 사실인 것이다.

The economic foundation of Eastwood life was the pit, and the young Lawrences were brought up to despise the pit and all it stood for Mrs. Lawrence was superior, and they were to become superior, too, to be white-color worker.<sup>20</sup>

어쨌든 이 양분된 두개의 가치에 대한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현실적인 생활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실제로 체험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음은 또한 숨길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와 아들의 시야에 들어온 [민턴]과 [브린스리]탄광을 보는 시각의 차이를 접하게 되고 이 양분된 관점의 차이만큼이나 서로 다른 정서적 갈등과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폭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인식과 고뇌하는 질의 차이를 만나게 된다.

\*\*\*@ 그러면 이제 궁경을 면하려고 애써온 어머니와의 관련에서 부터 [폴]의 개인사에 비중이 주어지는 과정으로 논의를 옮겨가 보기로 하자. 원초적인 생활의 이야기가 전부였던 소설이 인간다운 삶의 의미를 말하고 [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쪽으로 소설은 급선회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레이버즈]가의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어머니가 이런 만남의 원인제공자가 되고 있음은 전편을 통해서 가장 극적인 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조용한 가운데 진행된다. 앞으로 전개될 소설의 진전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어머니와 아들이별인 [레이버즈]가로의 산책에 대해 이렇게들 모두가 맹목이었을까를 생각하면 미상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말은 로렌스학도나 비평가들이 모두가 다 잊고 있는 부분이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유감 같은 것이다. 소설의 이러한 진전은 [폴]이 자신의 정체성을 펴 보이려하는 시점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함인데, 이때 그 장소로 [월리]농장이 채용되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월리]농

장은 생명력이라는 강렬한 주제의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윌리]농장의 생활과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폭 넓은 인식이 반영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폴]과 [미리엄]의 전체상이 들어난다. 그리고 중심적인 이야기는 [폴]과 [미리엄]간에 싹트는 사랑의 드라마이다. [폴]이 자연속의 생활에서 매우 강렬한 친화적 감흥을 느끼는 이곳은 '끊임없이 잉태와 출산이 계속 되는 곳'으로 특히 [레이버즈]부인의 지극한 신앙심이 지배하는 가정분위기여서 [폴]의 집과는 다른데가 있다. [미리엄]이 바라는 바는 [폴]과의 영적친교를 갖는 것이다. 그녀는 '암말이 새끼를 뱀다'the mare was in foal.[p.201]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수치스럽고 그들이 결백성에 흠이 되는 불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미리엄]과 함께 있으니 [폴]도 어쩔 수 없이 추상의 세계에 있게 되고 자연스런 사랑의 감정도 '사상의 흐름'the stream of thought.[p.214]으로 변해 간다. 그들은 상극이다: [린컨서]의 지평선을 굽어보고 있는 [노만]식으로 지어진 교회의 아치를 바라보며 [폴]자신은 [노먼]이며 [미리엄]을 [고딕]이라 했던것이다.

결국 [폴]과 [미리엄]의 관계는 육체적 요소를 부정함으로써 생기는 좌절감과 [모렐]부인의 궤방으로 그들의 관계가 실패로 끝날 운명에 놓이게 된다. 어머니는 [미리엄]을 '남자의 영혼을 송두리채 빨아먹고 말 여자'She is one of those who will want to suck a man's soul out till he had none of his own left[p.199]로 본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엄]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 [폴]이 너무나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두 여인으로부터 입은 영향에 대하여 [나레이터]가 그들의 역할을 옹호한 것은 침울한 분위기를 잠시 잊게 해 준다:

[미리엄]과의 교제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어 시야가 깊어진 [폴]이 마침내 그녀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의 온기를 백열화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 그것이다.

"In contact with Miriam, he gained insight; his vision went deeper. From his mother he drew the life-warmth, the strength to produce; Miriam urged this warmth into intensity like a white light."[p.196]

한편으로 [미리엄]은 [폴]의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자신이 신봉하는 '높은것에 대한 욕망' desires for higher things이 그리

속에 잠재하고 있는 '낮은것에 대한 욕망'desires for lower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차 있다.

이무렵 [폴]과 [미리엄]의 사이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이 있다. [폴]은 [미리엄]이 자기의 집으로 와 주기를 바라지만 [미리엄]은 사회교체의 무대를 교회로 하려한다. 여기서 [폴]이 [미리엄]에게 매우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결혼을 해도 충분할 것 같소?' 라는 물음에 [미리엄]의 대답이 "아니요"라고 한 것이다. 물론 두 사람의 정서에 메울수 없는 빈 공간이 여기서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두사람의 관계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간의 간격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폴]이 [미리엄]에 대해 관심을 늦추면 언제나 그 관심은 좀 더 진하게 어머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이번에는 [윌리]농장과 가족들에게로 관심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관심의 확산은 두말할 것도 없이 [폴]이 [미리엄]과는 상대적으로 멀어져 가는 역작용을 수반한다. [폴]의 관심이 [미리엄]이라는 인물에서 [윌리] 농원의 자연으로 관심의 대상물바뀌고 있다.

[폴]에게는 [레이버즈]가의 [윌리]농장은 [미리엄]을 처음 만났던 사랑의 장소였다. 그리고 [폴]은 여기서 [레이버즈]가의 사람들로 부터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모렐]가는 [폴]의 어머니에 의해 [미리엄]에게는 거부되고 달혀진 장소가 되어 있다: [미리엄]에게는 오직 교회만이 [폴]과 합류할 수 있는 장소로 남겨져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이 [폴]에게서부터 멀어져 갈 수 밖에 없는 [미리엄]의 현 주소이다.

\* [폴]이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상대역인 [Clara 클레이러]는 [미리엄]과 여러가지 면에서 비교되는 인물이다. 그녀는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신봉하는 여인이다. 그녀는 노동자이고 여성해방운동의 전위이다. 생계를 스스로 해결하는 독립심이 강한 여자인가 하면 정치적으로 깨어 있고 남성 우위의 남편에 대해 성적으로 결별한 기혼의 여장부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묘하게도 [미리엄]에 의해 동반되고 있으며 [폴]은 [노팅햄]의 [캐슬 게이트Castle gate]에서 이들과 만나고 있다.

[클레이러]의 등장은 [폴]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다. 사실 [미리엄]과 [폴]의 사이에 육체의 이야기는 금기이다. 그러므로 신체적 접촉을 통한 감각적 교통이 아니라 영교라는 정신적 관계가 [폴]을 긴장시키고 두 사람 사이의 갈

등을 증폭 시켜온 것인데 [클레이러]가 들어서 [폴]의 그런 불만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그는 [클레이러]와의 이 새로운 접촉을 통해서 생애 최대의 '디렘머'이던 [미리엄]과의 관계를 청산하기위한 어떤 새로움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리엄]과 나눈 지금까지의 사랑이 '낡고 낡은것'old, worn love [p.307].이라고 쓰고는 [클레이러]와의 접촉을 '새로운 자아'a new self요 '새로운 의식의 중심'a new centre of consciousness[p.309]이라고 까지 부르게 된다.

[클레이러]는 교육을 통해서 위엄있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폴]에게는 그녀가 처음부터 세속의 여인이었다. 따라서 [폴]은 그녀의 사회적 열망 따위엔 관심이 없다. 그는 자신의 필요성에 따라 상대를 평가 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클레이러]는 '[폴]의 동물적 욕구'21)를 충족시키는 장치일 뿐, 자신의 사회적 야망을 키워 가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미리엄]이라는 여자와 전주어 볼 때 그것은 더욱 분명해 진다는 것이 [폴]의 판단이다. 더구나 그녀는 기혼이다. 그것이 [폴]과 그녀가 장래를 논의하는데 있어 언제나 그들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혼의 문제는 또한 [클레이러]로 하여금 더이상의 방황의 처절함을 겪지않아도 되는 보호막 같은 장치이기도 하다. 돌아갈 수 있는데가 있어 그것이 설령 그들이 쉽게 결별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해 두는 꼴이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손 치더라도 말이다.

\* [미리엄]은 [클레이러]의 [폴]에 대한 사랑이 천박하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만, 그러나 [클레이러]는 [폴]이 가장 어렵게 해법을 찾아가던 [미리엄]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 지극히 인간적 해답을 주고 있다: '그녀[미리엄]는 당신과의 영적 친교를 전혀 원치 않아요. 그것은 당신의 상상에 불과해요. 그 여자는 당신 전부를 원하고 있어요.'That she doesn't want any of your soul communion. That's your own imagination. She wants you.[p.339]라고 말하는 그녀는 [폴]에게도, [미리엄]에게도 서로가 상대에 대해 깊이있는 감정이 결여되고 있음을 가르쳐 준 것이다. 사실 [폴]의 상대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두여인은 매우 대조적인 인물로 성격도 다르거니와 출신배경 또한 다르다.

21) Ibid, 20. p. 47



'Miriam was his old friend, lover, and she belonged to Bestwood and home and his youth. Clara was a newer friend, and she belonged to Nottingham, to life, to the world.' [pp. 337-8]

즉, [미리엄]이 시골처녀country girl이고 고풍스런 여인의 전형archaic type of feminity이라면 [클레이러]는 도시출신townner의 근대여성modern women으로 전자의 여인이 오랜친구요 연인이며, 시골의 고향과, 가정과, 청춘에 속하는 여인이려면, 후자는 새로 사귀 여인으로 도시출신에다가 자신과의 관계가 세속적인 인간관계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폴]이 보는 두여인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인물의 대조를 통하여 두여인을 비교한다라는 차원을 넘어 앞으로 전개될 자신의 행복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언급이랄 수 있다. [폴]의 생활은 아침이면 [노팅햄]에 와서 저녁에는 일을 끝내고 [베스트 우드]로 돌아가는 생활이다. 그에게 있어서 도시는 부의 고향이요 시골은 가난의 장소임이 현실이다: [폴]이 알기로도 음식에도 [베스트 우드]와 [노팅햄]의 차이는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Jordan's 조단상회]를 찾았을 때 [Carrington St.카링턴]가로 향하는 길목의 다리난간에서 바라본 운하가 [베니스]에 비유되고 있는 것은 회화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우리는 [노팅햄]으로의 진출이 어머니 뿐만 아니라 [폴]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이 도시가 바야흐르 실생활의 본 무대가 되려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폴]에게 있어서 [노팅햄]생활은 자신의 인생문제를 스스로 풀어가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폴]이 [클레이러]를 찾아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반드시 행복하지만은 않은 현실생활의 어두운 면면을 보고 있다. 침침한 부엌에서는 노 부인이 형꺾어진 '레이스'를 풀고 있고 [클레이러] 역시도 기계적으로 팔을 움직이며 일 하고 있다. '기계적인 일에는 절대로 굽힐리 없는 그녀의 팔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간의 육체를 기계화 하는 산업주의에 대한 [폴]의 저항의식을 말하고자 함일 것이다. 그런데 [클레이러]에게는 이 도시가 생활의 중심이다.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이 도시가 대지위에 난 '상처'a little sore이고 [폴]에게는 자연 속의 아주 작은 현 '딱지'a little scab로 각각 인식되고 있는 점은 도시에 대한 공통적인 혐오의식의 발로라는 관점에서 두사람의 생각이 매우 접근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시기는 [폴]이 [클레이러]와의 관계로 인하여 내홍의 고민에 빠져 있는 때여서 모든 것이 회의적이고 침울한 분위기이다: [폴]이 아직은 [미리엄]을 향한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장래에 맺어진다면 [미리엄]과 그렇게 되는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폴]이다. 그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집이[베스트우드]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정신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레이버즈]가의 사람들과 [윌리]농장이 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계신다. 그러니까 [폴]이 아직은 정신적으로 [베스트우드]라는 고향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폴]이 [클레이러]와의 관계를 '문명인들 사이에 가질 수 있는 남녀간의 우정'a friendship between man and woman, such as any civilized persons might have.[p.337]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고뇌는 시작된 것이고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사건이다. [폴]의 갈등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정신이 아직은 [미리엄]과 어머니를 놓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육체와 욕망의 세계를 지향하는 [노팅햄]의 [클레이러]와 정신적으로 영혼의 세계를 지향하는 [베스트우드]의 [미리엄]이라는 두여인에 대해 갖고 있는 대립되는 감정을 어떻게든 정리하려는 의도에서 불거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폴]과 [클레이러]와의 관계를 한층 밀착시키는 사건으로 변화를 맞게된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내 놓고 주장하고 있는 전제를 비교하면 이렇다.

[클레이러]는 [폴]이 '상대방의 가장 근본적인 것'And you haven't found out the very first thing about her.[p.339]을 알지 못하는 남자라는 점을 비판하는 반면에 [폴]은 나를 소중히 해주는 것은 좋으나 나를 지배 I want a woman to keep me, but not in her pocket. [p.339]하려고 또 나에게서 영혼만을 요구한다 want the soul out of my body.[p.339]면 그것은 받아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리엄]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클레이러]에게도 적용되는 경고이기도 하다.

여기서 대화의 흐름이 뚝 잘리고 만다. [폴]과 [클레이러]의 사이에 작지만 매우 미묘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폴]이 [클레이러]에게 남편을 혼나게 하는 것 같은 일은 없었는지?(.....)또는 남편께서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Didn't you do something that you knocked him to pieces?” (.....) "Making him feel as if he were nothing"[p.338]하고 엉뚱하게

도 남편 [도우즈]에 대한 문제를 언급 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클레이러]로서는 [폴]에게서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다. [폴]이 [클레이러]에게서 빠져 나오기 위해 준비된 책략이라면 책략치고는 저급한 것이긴 하지만 [클레이러]로서는 차마 [폴]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아니라는 데서 그녀로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다.

만사를 어머니의 눈을 통해 보아왔던 [폴]이 [미리엄]과 [클레이러]는 물론, 마침내 어머니께서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을 허물고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보려는 의지를 펴 보이기 시작하기에 이른다: 그것은 인생문제가 종교문제보다도 더 흥미 있다는 말로 지금까지 내심으로 키워온 개인적인 견해를 어머니에게 말하는 데서 좀더 확실해 진다. 심리적 안정과 물질적 위안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관은 싫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의 이러한 도전에 어머니는 아들이 지금 여자를 욕구하고 있고 그로 인해 고민하고 있음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의 방해물 she was in the way.[p.342]이 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더 이상은 자기의 원칙에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머니가 강조하는 중산층의 세련된 지적 세계 보다는 생명력의 온기가 넘치는 노동계급의 세계를 옹호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세계를 떠나 아버지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폴]의 정신과 관련을 맺음으로서 [폴]이 내 자신이라는 인간 in myself I am.[p.313]의 가치를 생명력의 추구에 두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강하게 풍기고 있는 데서 좀더 분명해 진다. 그러나 자신의 영혼이 동경하는 바를 만족시켜주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해 줄 수 있는 곳은 [노팅햄]과 [클레이러]에게 있다기 보다는 여전히 [베스트 우드]와 [미리엄]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이 [폴]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명력에 대한 강한 다짐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 “내 자신이라는 인간의 가치”라는 기준에서 볼 때 [폴]이 그토록 고뇌하는 [미리엄]의 현상은 그녀가 서민이 아니며 중류계급이 갖는 지적 자유를 동경하는 여자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녀의 욕심은 종교적으로 신성시 되는 영혼에 싹튼 몸이다. 어머니는 일찌기 너는 그녀와 연분이 아니다 You weren't suited for her.[p.366]라고 단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폴]의 그녀에 대한 죄책감과 의무감은 왜 그리도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일까? [미리엄]은 그들의 사랑이 투쟁이었다. their love had been always a conflict.[p.365]라 했고 드디어 서로는 각자

가 자기로 부터 자유가 되자 You be free of me, I free of you.[p.360]는 데 동의 하지 않았던가!

\*[폴]이 끝없이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선택은 [클레이러]에게 있었다. 새로운 인생을 그녀에게서 찾아보자는 것이 그의 태도였던게 사실이다. 생명의 충족이 있는 한, 행 불행은 문제가 되지않는다.so long as life's full, it doesn't matter whether it's happy or not.[p.315]는 것이 어머니와 다른 [폴]의 인생론이다. 그런데 다음순간 우리는 [클레이러]가 [폴]이 말하는 내면의 세계에 대한 이해보다는 [폴]의 실체에만 집착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 두사람의 거리감은 바로 이런 소유 되기를 원하지 않고, 소유 하려고 드는 독점 의식이 “위대한 그 무엇”something great[p.430]을 얻고도 갈라서게 만든 것이다. [클레이러] 남편에게로 돌아간다. [폴]도 이제 자기를 도와 줄 사람을 모두 잃는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으며, 할 말도 없고, 결국 자신은 nothing 무라는 것 He had nowhere to go, nothing to do, nothing to say, and was nothing himself.[p.501]이 [폴]을 슬프게 한다. [미리엄]과 [윌리]농장, [클레이러]와 [노팅햄], 가족이 살던 [베스트우드], 가정은 깨져 버리고 멩그라니 아버지만이 그곳의 친구네 집에 기숙을 하고 있다. 일찍이 아버지가 국외자로 내 몰렸듯이 [폴]이 처한 지금의 상황이 아버지보다 더 나을것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지한 아버지가 지니고 살아온 정신이 유식한 [폴]이 삶의 의의를 생명력이라는 이름으로 몸부림치며 추구해보려는 정신과 다르지않다는 사실을 읽게 된다.

우리는 [로렌스]가 [Jessie Chambers제시]와의 오랜 세월에 걸친 교제 때문에 [폴]과 [미리엄]의 관계를 청산하는데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책속에서 증언부인 하고있는 그들 관계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말이다. 더욱이 [미리엄]이 [폴]에게 요구해 온 것은 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인동형적인 영적 친교가 아닌가! 그러므로 그들 관계를 일상적인 사건을 다루듯이 설명해 나가기는 더욱 난처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쨌거나 [폴]이 그만의 자기속에 남아있는[미리엄]을 [베스트우드]의 [윌리]농장이 아니라 [노팅햄]의 조합교회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나고 있음은 시사적이다. 그러나 [클레이러]와는 육체적인 관계 외에는 [폴]이 괴로워 해야할 어떤 종속된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음일까!

그녀를 때릴다시피 [도우즈]에게로 넘긴 것은 [미리엄]에 견주어 볼 때 너무 가볍게 다룬 것은 흠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동일한 세대에 살았으나 서로 다른 인생관을 가진, 말하자면 한 시대를 살면서도 각기 다른 전통에 속하는 가치관을 가진 여인들이었다. 결국 [폴]은 그의 성장과정을 통털어 세 여인 모두에게서 커다란 영향을 입고 있다: 어머니로 부터는 엄격한 청교도적 도덕성을, [미리엄]에게서는 열화같은 이국적 정서를, 그리고 [클레이러]에게서는 도의적 자의식이 강한 신여성의 자유분방 함을 안 것이다.

“In his mother there is the moral earnestness and the will characteristic of an earlier puritan generation; in Miriam the intense cult of feeling that derives from the Romantic era; and in Clara the moral independence, self-consciousness and confusion of the “new woman”.<sup>22)</sup>

그러나 세 여인 모두가 다 그를 지배하는데는 결국 실패하고 있을 때, 그도 또한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 두었던 생의 방식이 현실이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고 있다; Painting is not living.[500]이라하여 소년시절 그가 어머니와 더불어 자신의 생을 설계하던 생활방식이 현실적인 처방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그는 입버릇처럼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의 이런 푸념이 더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지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이곳이 앞으로도 내가 계속 있어야 하는 곳인지를 회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폴]은 그의 생활이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베스트 우드]로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But no, he would not give in. Turning sharply, he walked towards the city’s gold phosphorescence. His fists were shut, his mouth set fast. He would not take that direction, to the darkness, to follow her. He walked towards the faintly humming, glowing town, quickly.” [p. 511]

---

22) Ibid, 15. p. 29

## II. 결론

소설의 대미는 [폴]이 시내쪽으로 걸음을 재촉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다만 시내를 향해 갔을 뿐이며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자신도 모르고 있다. [로렌스]에게 있어서 장소는 그의 인생이고 생활의 의의를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 이용되고 있다. 세상을 떠나기 일년전인 1929년에 잠시 들렀던 고향에의 추억을 그린 말 가운데 그는 '내마음의 고향'이 [이스트 우드]라고 썼다.

"I was born nearly forty-four years ago, in Eastwood, a mining village of some three thousand souls about eight miles from Nottingham, and one mile from the small stream, the Erewash, which divides Nottinghamshire from Deryshire. It is hilly country, looking west to Crich and towards Matlock, sixteen miles away, and east and north-east towards Mansfield and the Sherwood Forest district. To me it seemed, and still seems, an extremely beautiful countryside, just between the red sandstone and the oak-trees of Nottingham, and the cold limestone, the ash trees, the stone fences of Derbyshire. To me, as a child and a young man, it was still the old England of the forest and agricultural past; there were no motor cars, the mines were, in a sense, an accident in the landscape, and Robin Hood and his merry men were not very far away.<sup>23)</sup>

그래서 장소는 단순히 소설의 배경으로만이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의 의미이고 작가의 정신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베스트 우드]는 [로렌스]에게 있어서 자기정신의 본향같은 곳이었다. S/L에 나타난 [베스트 우드]는 바로 위에 인용된 [이스트 우드]를 이름만을 살짝바꾼 고장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로렌스]소설의 진정한 무대가 되고 있는 [Notts.노팅햄셔]의 [이스트 우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Derbys.더비셔]일대는 그가 소설속에 내보이고자하는 주제의식의 정신이 고스란히 그대로 살아있는 진정한 고향이나 다름없다. 그는 이곳을 배경으로 여덟책의 소설을 썼다. 그는 여행을 많이한 다작의 작가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에

23) Ibid, 4. p. 133 'in Nottingham Countryside and Mining Village'

게 있어서 여행의 끝은 곧 작품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럴때마다 그는 자신의 교리를 지령과 함께 다루었다. [폴]이 태어나서 자란 고장, [베스트 우드]에 [폴]은 끝내 되돌아오지 않았으나 [로렌스]는 자신의 정기가 서린 [이스트 우드]를 다시 찾고 있다. 그것은 [로렌스]에게 있어서 소설속에서 보여준 청춘시절의 끝이 아니라 현실생활에서 보여준 생의 끝이었다라는 점에서 [베스트 우드]와 [이스트우드]는 공히 [폴]과 [로렌스]에게 생활의 터전인 동시에 생명의식을 초혼하는 사유의 장이었다 할 것이다.



## Notes

<sup>1</sup> The White Peacock\* 1966. Penguin Books

part one: chapter 1. The People of Nethermere

I stood watching the shadow fish slide through the gloom of the mill-pond. They were grey, descendants of the silvery things that had darted away from the monk\*, in the young days when the valley was lusty. The whole place was gathered in the musing of old age. The thick-piled trees on the far shore were too dark and sober to dally with the sun; the weed stood crowded and motionless. Not even a little wind flickered the willows of the islets. The water lay softly, intensely still. Only the stream falling through the mill-race murmured to itself of the tumult of life which had once quickened the valley.

part two: Strange Blossom and Strange New Budding

part three: A New Start in Life

.....  
The Rainbow\* 1981. Penguin Books

Chapter 1. How Tom Brangwen Married a Polish Lady: /I/

The Brangwens had lived for generations on the Marsh Farm, in the meadows where the Erewash twisted sluggishly through alder trees, separating Derbyshire from Nottinghamshire.

Two miles away, a church-tower stood on a hill, the houses of little country town climbing assiduously up to it. Whenever one of the Brangwens in the field lifted his head from his work, he saw the church-tower at Ilkeston in the empty sky. So that as he turned again to the horizontal land, he was aware of something standing above him and beyond him in the distance.



Chapter 1. How Tom Brangwen Married a Polish Lady: /2/

About 1840, a canal was constructed across the meadows of the Marsh Farm, connecting the newly-opened colliers of the Erewash valley. A high embankment travelled along the fields to carry the canal which passed close to the homestead, and reaching the road, went over in a heavy bridge.

So the Marsh was short off from Ilkeston, and enclosed in the small valley bed, which ended in a bushy hill and the village spire of Cossthay.

The Brangwens received a fair sum of money from this trespass across their land,(.....),and in a while the Midland Railway came down the valley at the foot of Ilkeston(.....). They became richer, they were almost trademen. Still the Marsh remained remote and original, on the old, quiet side of the canal embankment,(.....).

.....  
Women in Love\* 1981. Penguin Books

Chapter one: Sisters

Ursula and Gudrun Brangwen sat one morning in the window-bay of their father's house in Beldover, working and talking. Ursula was stitching a piece of brightly-coloured embroidery, and Gudrun was drawing upon a board which she held on her knee. They were mostly silent, talking as their thoughts strayed through their minds.

"Ursula", said Gudrun, "don't you really want to get married?"  
Ursula laid her embroidery in her lap and looked up. Her face calm and considerate.

"I don't know", she replied. "It depends how yeoman".

Gudrun was slightly taken aback. She watched her sister for some moments.

chapter two: Shortlands

## References

- 1 Dorothy van Ghent, The English Novel/form and function, p.252.[1961USA Harper]
- 2 Ibid, 1. p. 252.
- 3 Ibid, 2. p. 252.
- 4 D. H. Lawrence, Phoenix, p. 527 [1961 London Heinemann]
- 5 Madox Ford, D.H. Lawrence: future primitive, vol. 5, p. 20 [ed. Dolres La Chapelle 1966 Univ. of N. Texas]
- 6 Vernon Lee, The Letter of D.H. Lawrence, p. xxx [ed. A. Huxley, London]
- 7 Edith Cobb, The Ecology of Imagination in Childhood, pp. 44-6 [1988 London]
- 8 Ibid, 4. p. 133
- 9 Ibid, 8. pp. 135-7
- 10 The Collected Letter of D. H. Lawrence, p. 952 [ed H.T. Moore 1962 London Heinemann]
- 11 D. H. Lawrence, studies in classic american literature, pp.7-14 [1982 penguin]
- 12 Jessie Chambers, D. H. Lawrence; a personal record, pp.30-8 [1980 Cambridge]
- 13 Mark Schorer: 'Lawrence and the spirit of place' p. 283
- 14 Anthony Beal, D. H. Lawrence, pp.3-6 [1968 oliver and boyd London]
- 15 Keith Alldritt, The Visual Imagination of D. H. Lawrence, pp.3-15[1971 London]
- 16 Ibid, 14. pp. 11-2
- 17 Ibid, 16. pp. 37-65
- 18 Ibid, 17. p. 561
- 19 Ibid, 3. p. 201

- 20 Scott Sanders, *The World of The Major Novels*, pp. 22-3 [1988 Indiana Univ. Press]
- 21 Graham Hough, *Dark Sun*, p. 23 [1975 London Duckworth]
- 22 Ibid, 20. p. 47
- 23 Ibid, 15. p. 29
- 24 Ibid, 4. p. 133 'in Nottingham Countryside and Mining Village'



D. H. Lawrence and The Spirit of Place(A)  
-With special reference to "Sons and Lovers"-

J G. Park\*

**Abstract**

Lawrence used the actual places as the setting for his novel story : "Sons and Lovers". The area around the Eastwood is the real background in the novel. Here he describes his feelings for old and new Eastwood, a sensation he calls 'the country of my heart'. He extends his thoughts in connection with many places, including Nottingham and the countryside as the background to the affairs of the main characters :- not describing the mines and the lives of colliers, but placing the story in a farm and country house. And so the real backgrounds in the novel are the Morel household, the countryside of the mining village, Willey Farm, and the nature of the Midlands.

In brief, this study mainly concerns the spirit of the author's precise and energetic description of these places and the detailed life of the main characters such as Mrs. Morel, Paul, Miriam, and Clara that makes "Sons and Lovers". And this study also conc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characters and the settings tha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is story.

In conclusion, the writer tries to explain how significant the setting is used in this novel in relation to Lawrence's theme.

---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Korea Maritime University